

시대상 반영... 현실 문제 담은 작품 많았다

2012 신춘문에 심사

시절 탓일까? 2012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대다수 응모작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상을 반영한 듯 힘겨운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21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이번 신춘문에 보심을 맡은 심사위원들은 "현실의 문제를 담은 문학적 입구에 충실한 작품이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신춘문예에는 이주 여성 비율이 높은 전남 지역의 특색 때문인지, 다문화화 소재로 한 작품과 가정의 파괴, 실직, 죽음, 가난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 많았다.

하지만 충분한 문화적 숙성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어려움을 털어놓는 수준의 작품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5일 마감된 올해 신춘문예에는 시, 소설, 동화 세 부문에 걸쳐 총 1027편이 응모됐다. 지난해 1200여 편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치열한 작가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이 대거 출품됐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비문인들이 도전했으며 서울·강원·제주와 미국 등지에서 작품이 응모돼 반세기 넘은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신춘문예의 심사는 소설 부문에 최인석·김별아, 시 부문에 객재구·함민복, 동화 부문에 이상권씨가 맡았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꼼꼼히 살펴본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주제와 완성도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1일 광주일보사에서 열린 2012 광주일보 신춘문예 본심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이 예비 문인들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소설·동화 등 1027편 응모... 연령층 다양, 작가정신 돋보여 눈길

최인석씨는 "이야기와 소설이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이야기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단편소설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평했다.

또 김별아씨는 "새로운 작가를 찾는 신춘문예의 특성상 새로움을 담은 '젊은 작가'를 찾게 되는데, 너무 안정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에 매몰된 작품은 당선작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 분야는 출품작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삶을 치밀하게 들여다보는 의식은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객재구씨는 "문단에서 시 분야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세상을 들었다 놓을' 정도의 절창은 없었다. 좋은 시는 실험정신과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함민복씨는 "대상으로 파악하고 대상으로 들어가는 주제의식이 약했고, 우리 시대의 흥미와 흐름과 맞닿아 있는 시들이 많았다. 본심에 오른 시들은 무엇이 정의이고, 꿈이고, 삶인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동화 부문은 예년과 달리, 다양한 연령의 예비문인들이 도전했다. 동심의 눈으로

다문화사회, 결혼가족 이야기, 기러기 아빠 등 삶의 문제들을 다룬 생활 동화가 두드러졌다.

이상권씨는 "전문지식이 담긴 과학 등 소재가 광범위 다양하고, 흥미로웠다. 하지만 소재를 끌고 가는 주제 의식이 약했고, '문학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작품들도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작은 2012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2년 1월 중순 열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색다른 영화 만나고 싶다면 광주극장으로

'르 아브르' '푸치니의 여인' 등 상영... 28일엔 영화퀴즈대항전

올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4', '마이웨이', '퍼펙트 게임' 등이다.

색다른 영화를 만나고 싶다면 광주극장을 찾아 보는 건 어떨까. 북유럽의 거장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작품 '르 아브르'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항구도시를 배경으로 천사의 마음을 가진 구두쇠가 마르셀과 난민 소년 이드리스, 화가의 이름을 가진 마을 경감 모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올해 칸 영화제의 '주목할만한 시선' 개막작인 '레스트리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두 소년, 소녀의 만남과 사랑을 판타지

적인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로 스 반 산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007년 플라치상을 수상하고 토니어워즈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던 동명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레빗 홀'은 니콜 키드먼, 아론 에크하트와 '헤드워'의 존 캐머런 미첼 감독의 만남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올해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 보엠'의 작곡가 푸치니를 만날 수 있는 '푸치니의 여인'은 클래식 음악팬을 유혹하는 작품이다.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이탈리아의 '토레 델 라고'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영상이 어우러졌다.



레빗홀

오는 28일 오후 8시부터는 '제5회 영화퀴즈 대항전'도 열린다. 지난 2011년 한 해 개봉되었던 영화들을 퀴즈로 풀어 보는 행사로 우승자에게는 광주극장 관람권, 도서, 와인 등 푸짐한 상품이 증정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스24 선정 올해의 책

김어준 '닥치고 정치'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선정하는 '2011 올해의 책'에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가 선정됐다.

8만 8000여명의 네티즌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닥치고 정치'는 8.37%인 3만654표를 차지했다. 2위는 윌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 공식 전기 '스티브 잡스'가, 3위는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차지했다.

그밖에 박경철의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문재인의 운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앵콜 오래전 사랑

황혼기... 세친구의 순정과 우정

23~31일 공동예술극장·24·31일은 밤 10시 공연

극작가 이만희의 작품 '불 좀 꺼주세요',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옹따개비' 등은 꾸준히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진솔한 삶의 모습을 찬찬히 드러내 보이는 그의 작품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극단 드라마스튜디오는 이 작가의 작품 '오래전 사랑'(원제 언덕을 넘어서 가자)를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린다.

23~31일 평일 오후 7시30분, 일요일 오후 4시, 24일과 31일에는 밤 10시에 공연을 시작한다.

작품은 고단한 인생의 고갯길을 넘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세 친구의 순정

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우직하고 간간하지만 순정적인 안애와 바람이 있어 보이지만 역시 한결같이 다해만 바라보는 자용, 그리고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름다운 그녀 다해가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작가는 "노인들에게 첫사랑과 흘러간 옛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올해 전국연극제에서 남자연기상을 수상한 윤희철씨와 이현기·강인영씨가 출연한다. 연출은 김남진씨가 맡았다.

지난 11월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해 호평을 받았다. 티켓 가격 1만5000원, 1만원. 문의 515-88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단아한 접시·꽃피는 화로... 아름다운 생활자기들

무토회 창립전 '동행' 23~30일 갤러리 생각상자

여성 도예작가들의 단체인 '무토회'는 오는 23~30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창립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동행을 주제로 김수정·김숙인·나혜님·민숙영·박미경·박정하·송경래·양미라·윤난희·이미란씨가 참여해 생활 자기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김수정씨는 청차로 빛은 단아한 접시 연

작 '초대'를 선보이고, 김숙인씨는 대나무를 파낸 듯 자연스러운 선과 빛이 돋보이는 '끼리 끼리'를 전시한다.

또 민숙영씨는 동근 곡선의 흘러내림을 강조한 '안식'을 출품했고, 윤난희씨는 꽃잎을 새겨넣어 독특한 표면 질감으로 마무리한 '꽃피는 화로'를 선보인다. 문의 062-676-898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숙인 작 '끼리 끼리'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www.geumssoojang.com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추환